

News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한다

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통해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 제도 개선하겠다 밝혀...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공시주기를 1개월로 단축 또한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하겠다는 입장...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하는 방안이 유력

총이자액 늘지만 월상환부담 줄어... '50년 주담대' 시대 열린다

서울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 포함... 다만 DSR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만 언급 오는 7월부터 DSR규제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적용... 또한 만기 50년까지 주담대 도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초장기 대출 자리잡을지 관심 쏠려...

'고금리 입출금통장' 인행 공시에 시중은행, 저원가성 핵심예금 유치전

아주경제

5대 은행, 저원가성 예금 잔액 3월 대비 8조 1,138억원 감소...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시 통상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대기성 자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특히 이종 4월 MMDA 잔액은 전월대비 5조 4,193억원 감소...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수익성 부담 커지기 때문에 공들이는 이유... MAU 확대나 핵심 예금 활동 고객 증가 등 노력

금감원장 "퍼펙트 스톱 대비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동아일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잠재 신용위험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 충분히 쌓아야 한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은 손실흡수 능력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 언급 예대마진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 관리 요구... 최근 우리은행 직원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해 책임자 엄정조치 주문

'적자보험'은 옛말...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 핫해진 '미니보험'

서울파이낸스

미니보험, 최근 모바일 플랫폼과 MZ세대 겨냥한 전략 맞물리면서 출시하는 보험사 증가... 카카오톡이 생활 밀착형 보험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 치열할 전망 삼성화재, 2일 기준 모니모에서 미니자전거보험 출시... 암보험에서도 미니보험 출시 중... 가입 문턱을 낮춰 미래 고객 선점 목적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연합인포맥스

서울행정법원,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관리인 선임과 경영개선명령 집행정지도 받아들여...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례적 결정... 예보로 넘어간 MG손보의 경영권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NH증권, '은행 25년 독점' 펀드 수탁시장 진출

한국경제

NH투자증권, 오는 10월 증권사 최초 펀드 수탁 시장 뛰어들어... 지난 25년간 은행 독점한 펀드 수탁 시장에 지각변동 일어날지 주목 복잡한 상품 구조를 잘 이해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 수탁 사업을 해도 충분히 승산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 약 100억원 투자해 관련 시스템 구축 중

중투사 염원 이룬 키움증권, 득실 따져보니

비즈니스위치

키움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선정... 자본 2배 이내에서 투자자 대출 가능, 기업신용공여업무 가능... 초대형 IB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다만 국내외 주식시장 조정 국면 길어지는 상황에서 발행어음 출시할 경우 일시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